

#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진안군, '2023~24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 갖고 확보방안 논의

김창열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28일 '2023~24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 부서가 정부 및 전북도 재정투자 방향과 정책동향 파악에 적극 나서는 등 주요정책 사업을 비롯한 군민의 행정 수요와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발굴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반응과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군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공충산업 거점단지조성,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군립 자연 휴양림 조성, ▲양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용담호 생생수 생태탐방로 조성, ▲산전전 인공습지 조성, ▲좌산·포동



김창열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28일 '2023~24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등으로 국가예산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창열 군수 권한대행은 “진안 발전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 담당부서와 소통·공조하여 부처 방문을 통해 부처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총 67개 품목 보험료 95% 지원 농민 부담 감소

진안군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농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은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 시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95%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로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약 8억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농가는 가입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벼는 진안군 관내 농협에서 농가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농가의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대상 품목은 벼, 고추, 인삼, 시

설작물 등 총 67개 품목이며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다르니 농가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농가의 주요 재배작물 가입기간은 ▲고추(5.20까지), ▲인삼(5.27까지), ▲벼(6.24까지)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작물별 가입 기간을 확인 후 방문해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재해 발생 시 재해보험이 농가의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 한다”며 “특히 5월은 매년 작물 피해가 큰 고추, 벼, 인삼 작목의 가입 기간이니 재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진안군, 용담호에 뱀장어 치어 방류

진안군은 28일 용담호에 내수면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뱀장어 치어 약 5400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뱀장어는 대표적인 토속어류로 치어 크기는 전장 10cm 이상이며, 국립수산물학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합격한 검증된 종자이다.

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뱀장어는 내수면 어종 중에서 가장 생존율이 높아 향후 2~3년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뱀장어 치어 방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용담호와 공공용수면에 붕어, 풍자개, 소가리, 다슬기를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무주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은 9,115호(최저 122만~최고 6억 6,700만 원), 공동주택은 2,135호(29일 공시)에 대해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3.11%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은 1.07%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택가격 결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더불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무주군에서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무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건강보험료 및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원연장 꽃잔디 동산에 펼쳐진 꽃들의 향연

진안군 원연리 꽃잔디 동산이 화려한 꽃 양탄자로 물들었다.

진안을 원연장마을 인근에 위치한 원연장 꽃잔디 동산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상춘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볼거리로 유명하다.

16만5,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산 하나를 빼곡하게 채운 꽃잔디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동산 위에 서면 더없이 환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또한 곳곳에는 툇립, 철쭉들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어 꽃길을 걸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꽃동산 곳곳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전기차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지가 넓고, 산길이라 오르기 어려운 관광객들도 이



를 통해 편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꽃동산 구석구석에는 포토존이 자리 잡고 있어, 봄날의 멋진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축제를 열지는 않지만 5월 8일까지 관광객들에게 꽃잔디 동산을 개방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전 직원 일제 영농 현장 지도 나선다

무주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당면 영농 현장 지도에 나선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적극적인 능동적인 농업기술 지원을 통한 현장 군정 실현을 위해 무주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 직원 일제 출장 현지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술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농촌 지도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읍·면별로 팀을 배정해 운영하는

현장지도는 벼 공동육묘장 병해충 방제를 비롯해 사과 화상병 개화기 방제, 복숭아 적화작업 기술지도,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난(월동을 버린 알) 및 발생 밀도 조사 등 영농 시기에 맞춰 진행을 하고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 황재창 팀장은 “영농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영농철을 맞아 현장 지도의 날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젊은 후계자 농업인도 적극 발굴해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물 장수한우 흡쇼핑 특별 판매전’ 진행

#### 5월 1~20일 판매

장수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장수군 농특산물 대표 소품물 장수물과 특별방송에서 장수물 장수한우 흡쇼핑 특별 판매전을 연다.

28일 군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SK브로드밴드 Btv 특별방송과 장수물에서 최고급 품질로 구성된 장수한우 명품구이세트와 알뜰정육세트를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기간 중 장수한우 특별방송은 SK브로드밴드 Btv(채널 1)을 통해 5월 1일부터 7일까지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 1일 2회씩 총 14회 방송



장수물 흡쇼핑 방송.

된다. 등심과 특수부위(부채살,제비추리,업진살)로 구성된 명품구이세트는 3팩(900g)에 14만1,000원에 판매되며, 한

우 국거리, 장조림 등으로 구성된 알뜰정육세트는 3팩(900g)에 6만3,00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구매는 전화(080-730-8000) 또는 장수물(www.jangsumul.com) 사이트를 통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군동 농축산유통과장은 “군에서는 앞으로 장수물 홍보와 판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한우뿐만 아니라 사과, 오미자 등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장수군의 농특산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위한 맞춤형 조림사업 추진

진안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권 지역의 건강한 생태환경 증진 및 산림경관 기반 구축을 위한 2022년 봄철 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는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군유림 및 사유림 378ha에 ▲경제림 조성 ▲관나무 공익 ▲미세먼지 저감 ▲지역특화 ▲산림재해방지 ▲밀원수

조림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했다.

특히 군은 관광 및 도로변 주변 공공녹지, 생활권 주변 녹지 등에 조림사업을 확대해 도심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인 2021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산림을 대상으로 했으며, 묘목 활착률 향상을 위해 타

년도에 비해 사업 시기를 앞당겨 4월 말까지 상수리, 백합, 소나무, 편백 등 12종 984천본을 식재를 완료했다.

또한 군민이 직접 참여해 나무가 주는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이나 자투리땅에 심어 쉽게 가꿀 수 있는 유실수(매실, 자두나무) 4,000주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분양도 추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